

성 베르뇌 주교 전기 독후감 당선작

최우수상

성 베르뇌 주교 전기를 읽고.

공미혜 마리아 막달레나

큰 딸아이가 7살이 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주일학교도 다니게 되었다. 주일학교에서 새로 받은 가방이 아이 덩치에는 꽤 커 보이는데도 스스로 메고 성당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벌써 이만큼 컸나 싶어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이 든다. 그런 아이가 어느날은 혼자 심부름을 다녀오겠다고 일거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슈퍼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도 하고 7살이니 이제 심부름을 할 나이도 되었지 하는 생각에 “어디한번 해볼래?” 하고 두부를 사오라고 돈을 쥐어주었다. 딸아이는 신이 나 돈을 받자마자 튀어나갔다.

그리고 신이 난 딸아이와는 반대로 눈앞에서 딸아이가 사라지자 나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슈퍼 가는 길이 보이는 베란다에 가서 아이가 아파트를 나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골목에서 사라지자 괜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까지 했다. 잠시후 아이가 당당하게 두부 한 모를 품에 안고 골목에 나타나자 그제서야 한숨이 놓여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며 딸아이를 불렀다.

며칠전 친한 자매님으로부터 성 베르뇌 주교님의 전기를 건네받고 읽게 되었다.

베르뇌 주교님이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선교를 위해 떠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희생은 그래서 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게다가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잠깐 눈앞에 아이가 사라진 순간도 너무나 공포스러워 조바심을 냈던 나였

기에 더욱더 가슴이 아팠다. 그런 마음을 주교님도 잘 알고 계셨기에 항상 어머니와 그분의 누이가족을 걱정하며 기도하셨던 것일테다.

18세기 천주교가 아직 배척받고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한 베르뇌 주교님께서 당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다독이고 위로해주시며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역시 인간적인 슬픔, 고통을 어떻게 위로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사역,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은 언제부턴가 하느님을 잊고서 혼자서 바둥거리며 살아가기 급급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였다.

파리를 떠나 처음 도착한 마닐라에서부터 마지막 조선에 오기까지 긴 여정동안 오고간 서신에 담긴 18세기 시대적 상황과 천주교 박해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져 안타깝고 한편 숙연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울린 것은 그런 핍박과 어려운 환경을 토로하는 글들에서조차 조금의 후회와 원망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께서 가야 할 길을 더욱 더 분명하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었다. 괴로운 사역의 모습이 아닌 담담히 하느님의 임무를 하나씩 하나씩 수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인생에서 겪게되는 고난, 실패, 그리고 좌절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스스로를 비난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사소한 어려움앞에서 쉽게 누군가를 자책하고 한동안 괴로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인이란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수록 기도로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를 물었어야 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면 흔들릴 일도 괴로울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참수형을 선고받고 기다린 감옥생활은 분명 참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기간이었지만 주교님과 다른 선교사제들은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이며 자신들을 봉헌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참수형을 면하고 프랑스로 귀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전교지인 만주로 떠난 것은 그분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알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는 선교사제의 모습은 이렇게 나를 경건하고 숙연하게 만들

어 주었다.

주교님께서 겪으신 그전까지의 고난들은 마지막으로 도착한 조선에서의 사목을 위한 단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 도착하신 주교님 역시 주님을 따르려는 많은 조선의 천주교신자들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런 까닭에 주교님이 오시기 전인 1839년 박해때 최경환 프란치스코 가족의 순교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울렸다. 최 프란치스코는 아는 것이 부족하여도 스스로 묵상하고 독서하며 하느님께 가까이하려 하였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박해와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는 나서서 순교자들의 시신을 매장하고 그들의 형제들을 도와주었다. 순교를 위해 신도들을 데리고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두려움에 떠는 신도들을 격려하며 당당히 이끌었다. 그리고 형장에서 순교하기까지 온갖 잔인한 고문속에서도 의연히 평화로왔다. 그의 아내 마리아 또한 아이들의 고문을 보며 괴로움에 배교를 하였으나 다시 취소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과 아이들을 따라 순교하였다.

이러한 소중하고 귀한 순교의 피들이 밑거름이 되어 한국의 천주교의 역사가 세워졌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뜨겁게 만들었다. 배교와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에 순교를 기다리며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용감하고 훌륭한 일인지 감히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역사의 길을 보여준 분들이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이러한 선조들의 기록이 있었기에 하느님은 기꺼이 선교사제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한국에 천주교를 뿌리내리게 하여 주신 것이리라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을 생각해본다.

박해라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신앙을 지켜내어야 했던 조선의 그 때와 알게모르게 나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유혹에 흔들리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그때와 지금은 서로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해본다. 베르뇌 주교님과 조선의 많은 신자들이 걸었던 그 길,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했던 그 길. 나는 지금 그 시절 그 분들이 걸어온 그 길에 서서 그분들의 희생을 가슴에 담는다. 그리고 하

느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해본다.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딸아이를 더 꼭 안아줘야겠다. 그리고 아이에게 부끄럽지않은 신앙인 엄마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성 베르뇌 주교전기 독후감 당선작 우수상

<성 베르뇌 주교 전기>를 읽고 우리 시대의 순교를 생각하다

박영미 스텔라

나는 우리 본당 주보수호성인이신 “성 장 베르뇌 시메온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미사가 끝난 후에 기도를 할 때마다, 그리고 성당 제단 옆에 안치되어 있는 장 베르뇌 신부님의 유해의 일부를 바라 볼 때마다, 그분의 삶이 뚜렷하게 순교의 현장을 살았음을 기억하며 공경하지만, 사실 장 베르뇌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을 그렇게 깊이 조명해 볼 기회는 없었다. 그런데 성 베르뇌 주교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의 삶에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과연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순교적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시메온 베르뇌 장경일(張敬一) 주교님은 하느님께서 그를 전교지방으로 부르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파리를 떠나면서 그분은 어머니께 이렇게 썼다. “제 마음이 지금처럼 평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영별로 빠져드는 영혼들을 구하고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는 가장 확실한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어머니와 이별하면서는 “제가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희생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구원과 하느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은 어머니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제 성소에 불충실한 것을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천만번 죽은 것을 보는 것을 더 낫게 여기실 것입니다.”하시며 선교사제 직무를 수행하려고 떠난다.

베트남 톡킹에서, 만주에서, 사목활동을 하면서 “선교사제의 생활이 우리 주님의 생활과 더 가깝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 이것이 이제부터 저의 배우자입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을 여러 차례 겪어내시는 신부님의 모습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제해야 한다는 일념이 너무나 놀라웠고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갖고 살아가셨을까 읽은 내내 마음이 아팠다. 또한 이역만리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선교가 곧 죽음이었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함께 가셨음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창설기의 한국교회는 한국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씨앗을 틔우고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파리 외방 전교회의 선교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특별히 교우들에게 교리와 신심을 돕는 책을 펴내는 데에 힘쓴 베르뇌 주교님은 “조선. 더할 나위 없는 순교자의 땅. 그 이름만 들어도 선교사들의 심금을 울리는 조선. 그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기를 거절하겠습니까? 하시며 위태로운 조선에서 겸손과 헌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순교의 길을 가셨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칼에 의한 순교는 없고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도 없다. 하지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더 무서운 칼들이 나를 겨누고 있다. 한 번쯤 주일 미사에 빠져도 상관이 없고, 몇 날을 하느님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영적인 교만과 때때로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내가 만나는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표현하지 않으려는 생각들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성호를 긋는 일이 왜 나는 부끄러운지. 진정으로 내가 간직한 가톨릭 신앙에 대한 매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일 것이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솔직히 나에게 가장 봉헌하기 힘든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삶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다. 그래서 늘 입에는 바쁘다는 말이 붙어산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봉사를 요구하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님을, 나 홀로 즐기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더 크기 때문임을 내가 모르지 않던가?

가톨릭 신자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느님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봉헌하는 훈련이라 생각된다. 나의 습관적인 삶의 틀을 바꾸는 노력. 건강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한 시간도 투자하기 싫어하는 나의 삶을 반성해 본다. 그리고 단순히 가톨릭 주일 미사가 지루하고, 별다른 감흥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신앙인으로 텅 빈 성당 감실 앞에서 하느님과 오붓하게 단 5분이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 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쳐본 적이 있는 지, 사람들과 만날 때 좀 더 진지하게 신자답게 말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하게 된다.

교회에 봉사하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자신의 영광과 존중, 칭찬을 위하여가 아니라, 베르뇌 주교님처럼 오로지 '위주광영' 주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하느님게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강한 믿음의 체험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그 삶의 목표가 정말로 건강하고 영원한 것을 염원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의 영으로 가득찬 사람이라면 내게 교묘한 박해의 칼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주님께서 일러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 할 것이다. 하느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가톨릭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가 아닐까 싶다.

"성 장 베르뇌 시메온 주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베르뇌 주교전기 독후감 당선작

장려상

<성 베르뇌 주교 전기를 읽고>

유정화 카타리나

우리 성당의 주보성인인 성 베르뇌 주교의 전기는 우연히 아이들의 겨울방학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읽기 시작했다가 놓칠 못하고 며칠을 책에 쏙 빠져 보내면서 완독을 하게 되었다. 본당의 주보성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 이런 분이셨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새삼 우리나라의 천주교 박해가 이 책을 통해 실감이 나기도 했다.

베르뇌 주교가 활동했던 시기인 19세기 서양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해외선교와 순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시기였다고 한다. '종교'와 '신앙'대신 '과학'과 '이성'이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베르뇌 주교의 모국인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직자와 신자들은 모두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몰두 하였고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깊었다고 한다. 선교지로 파견되어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를 하는 선교사에게는 세상 악에 대한 '승리'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난 이 전기를 읽으면서 언제나 위엄이 있으시고 성덕이 충만하셨던 베르뇌 주교를 더 존경하게 되었고, 읽는 동안 가슴속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베르뇌 주교는 제4대 조선대목구장이다. 선종한 뒤 교황 칙서를 통해 1854년에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다. 한국 이름은 장경일(張敬一)이다. 1839년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했고, 이듬해 통킹으로 떠나게 되었다. 통킹은 북부 베트남이다.

통킹으로 떠가기 전 홀로 되신 어머니께는 자신이 해외 선교사제로

떠남을 알리지 않았다. 떠난 후에 어머니께 보낸 편지를 읽고 내 가슴도 미어졌다. '저는 어머니께서 그것을 알아채실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를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꼭 다시 뵙고 싶다는 베르뇌 주교의 편지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나중에 주교의 어머니께서는 왜 아들이 그토록 다정하게 꺼안았는지 몰랐다고 했다. 당신 품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다. 주교는 편지에 어머니와 누이에게 지금 겪는 이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자고 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고통을 가라 앉혀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 많은 해외 선교사제들의 부모님의 마음이 헤아려 졌다. 아들을 먼 타국으로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저려왔다.

주교는 베트남에서 체포되어 22개월 동안 심문과 고문을 받았다. 다른 나라의 사제들은 참수형을 선고받았지만 프랑스와의 외교문제를 고려하여 베트남에서 주교는 프랑스 군함에 승선하게 되었다. 군함의 선장은 프랑스로 귀환시키려 하였으나 주교가 강력히 반대하여 마카오로 들어가게 되었다. 만주대목구 선교사로 임명되어 마카오를 떠나 홍콩, 상해를 거쳐 요동에서 사목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만주는 지금보다 훨씬 넓어 길림, 흑룡강, 요동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주교는 10여년간 만주에서 열성적으로 사목활동을 하였다. 주교는 베를 주교에 의해 주교품을 받게 되어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만주를 떠나게 되었다.

"조선! 매우 훌륭한 순교자들의 땅입니다. 조선은 오로지 그 이름만으로도 선교사제의 심금을 강하게 울려줍니다. 그런 조선의 문이 당신에게 열렸을 때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순교가 거의 확실한 조선으로 떠나면서 주교가 지인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이다. 조선으로 들어가면서 주교가 하느님께 청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이었다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은 말씀하셨다.

흔히 선교사들은 언제든지 떠날(순교)준비를 하고 맡겨진 성지에서는

평생을 살 것처럼 봉사를 하신다고 한다. 이 말처럼 베르뇌 주교 역시 많은 소임을 다 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다. 당시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나라는 극도의 절제와 고통이 따랐다. 그걸 모르고 들어오셨을까? 하지만 베르뇌 주교는 최양업 신부님을 마카오에서 가르칠 때 우리나라 신자들의 열성만은 듣고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우리가 직접 배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베르뇌 주교도 조선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희망이라는 것을 안고 오지 않으셨을까. 좀 더 많은 조선 땅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는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조선에서 8개월 동안의 박해가 주교의 모든 희망을 깨뜨렸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갔고 200명이 넘는 가족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났다. 집들이 불에 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일만 남았음에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비신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 베르뇌 주교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프랑스의 모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것 이라고 했다. 프랑스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열성적인 많은 사제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해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생각하면 몹시 슬프다고 하셨다. 하지만 일 년에 하루 사제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신자들은 궁핍하고 위험을 무릅 써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결코 미지근한 신자는 거의 없다고 하셨다. 주교가 조선의 신앙인들을 무척 사랑하시고 아끼신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편지이다. 또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프랑스 고향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그곳 사람들은 조선의 개종을 위하여 성모송을 바쳐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 편지가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베르뇌 주교는 1866년 2월 23일에 체포되어 심문과 고문을 받다가 브르트니에르신부, 도리신부, 볼리외 신부와 함께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그리고 1984년 103위 순교자로 서울에서 시성되었다.

우리 수지성당은 주보수호성인으로 베르뇌 주교를 현양하고 그의 신

심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는 아이들이 첫영성체를 하던 해에 오랜 냉담을 끊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아이들의 성화에 주일학교 교사도 시작했다. 언젠가는 그분께 돌아가리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는 나에게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엄마인 나를 돌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바쁘고 힘들게 그동안 지내왔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 세 번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은 우리 선조들의 신앙인으로 서의 삶과, 베르뇌 주교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은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는 훌륭한 시간이 되어 주었다. 십자가의 길을 할 때 나는 12처에서 울컥한다. '혹시라도 영원히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희에게 닥칠 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지금도 코끝이 찡해 오는 것은 주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끝.

성 베르뇌 주교전기 독후감 당선작 장려상

성 베르뇌 주교 전기 독후감

유 구(스테파노)

성 베르뇌 주교는 우리 (수지) 성당의 주보성인입니다.

성인께서는 한분이신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뜻으로 한국 이름을 장경일(張敬一)로 명하셨습니다. 1968년 로마에서 시복되었고, 1984년 서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하느님 백성을 교육하는 데, 순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교황 레오)

베르뇌 주교가 활동했던 시기는 서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해외선교와 순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위험하고 고된 선교지로 파견되어 복음을 전파하다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것은 선교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예이자 세상 악에 대한 승리로 인식되었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거룩한 승리자로 기리는 축제에 앞 다투어 참가했고 다양한 현양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성인께서는 1837년 5월 20일 사제서품을 받았고, 1839년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학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하느님의

숭고한 섭리의 손길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손길에 당신을 맡기셨으며, 천주교의 진리를 증거 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생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이미 베르뇌 신부를 조선 전교지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1840년 9월 성인께서 통킹으로 가시는 도중 마카오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두 조선 학생과 통킹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 두 조선 학생은 다름 아닌 김대건 안드레아와 최양업 프란치스코였습니다. 1845년 만주에 있는 동안 페레올 주교에 의해 조선대목구 부주교로 지목되었고, 1854년 8월 5일 교황 칙서를 통해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의 사업에 쓰실 도구들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십니다.

성인의 삶은 순교로 시작하여 순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인은 전통적인 순교의 땅인 통킹과 만주를 거쳐 조선에서 차례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통킹에서 체포되어 2년여의 감옥살이 후 만주에서 11년간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1856년 3월 29일 서울에 도착 10년간 제 4대 조선대목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동료 선교사 브르트니에르 신부, 도리 신부, 볼리외 신부와 함께 1866년 3월 7일 병인박해 때에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아 위주치명(爲主致命)하였습니다.

신해, 신유, 기해, 병인 그리고 오늘

신앙의 자유가 없던 시절,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성 베르뇌 주교를 포함한 수많은 신자들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며, 모진 박해 속에서도 목숨과 맞바꾸어 얻어낸 미사 - 오늘 하루 받아 모신 성체는 죽어간 모든 신자들이 그리던 꿈이요 희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적 박해가 사라진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보다는 나를 우선시하고, 물질과 금전의 mammon을 숭배하며, 내적 성장보다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체면을 중시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테오 7장 33절)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나 자신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나 우리들 모두 예비 신자 시절 처음으로 배운 것, 성호경부터 제대로 그었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자랑스럽게-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16년 4월 24일

유구 (스테파노)